

# 고려대 '인문학 날개' 달고 3년 만에 1위 … 서울대는 기업 인사팀에 인기

〈최고위과정 및 인문과정〉

## 법·행정계열 평가

2018 한경 대학 최고위과정 평가' 법·행정계열 최고위과정 선호도 조사에서는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 및 인문과정이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이 뒤를 이었다. 법·행정계열은 임원들이 입학을 희망하는 최고위과정 순위에서 한 단계 오른 3위를 기록하며 인문·문화계열과 순위를 바꿨다.

## ◆ 고려대 최고위과정의 약진

지난 2년간 3위에 그쳤던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 및 인문과정은 올해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다. 1987년 개설된 이후 2기를 보강하고 있는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은 3000여 명의 등록을 배출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사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 및 인문과정은 입학 선호도와 교육 내용, 임원 평판, 네트워크 형성 등 대부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추가된 인문학 과정이 결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원 고려대 정책대학원장은 "올해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명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강사를 대거 초빙했다"며 "정책과정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촉진한 인문학의 강점을加以 방향으로 운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도 이번 평가에서 6위를 기록했다. 2015년 순위가 9위까지 내려갔지만 노동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조대였던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1965년 노동문제연구소부터 시작돼 한국의 노동운동과 역사를 함께했다"며 "건강하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조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 과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 인사팀과 공공기관은 '서울대'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은 작년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인사팀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1위를 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고 법학



동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모습. 동국대 제공

## 고려대, 노무현 前대통령 등 3000명 오피니언 리더 배출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정부·공공기관 선호도 1위국내 첫 부동산 특화과정  
동국대, 4계단 올라 8위

## 성공했다.

조대였던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1965년 노동문제연구소부터 시작돼 한국의 노동운동과 역사를 함께했다"며 "건강하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조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 과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인사팀과 공공기관은 '서울대'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은 작년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인사팀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1위를 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고 법학

## 어떻게 평가했나 서울 주요대 42개 과정 선호도 조사…CEO 등 418명 참여

'2018 한경 대학 최고위과정 평가'는 한국경제신문이 네 번째로 시행했다. 경영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CE)과 임원, 고위공직자는 물론 최고위과정(AWPI) 등 주요 대학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산업체·변조계·공지·언론계 등각계에 걸쳐 있는 동문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해당 대학들이 중(중등문) 자격까지 주고 있

어서다. '한경 최고위과정 평가'는 수요자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고위공직자는 물론 최고위과정(AWPI) 등 주요 대학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조사 전문가인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한 올해 평가에는 서울지역 20개 주요 대학이 추천한 42개 과정을 대상으로 했다.

최고위과정을 고를 때 대학교

## 법·행정계열 순위

순위	학과(과정명)	2017년		2018년	
		2017년 순위	2017년 학과(과정명)	2018년 순위	2018년 학과(과정명)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1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및 인문과정
2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2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2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3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및 인문과정	3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3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4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4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4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5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5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5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6	중앙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6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6	고려대 경책대학원 최고위과정
7	한국대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7	한국대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7	한국대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8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	8	한국대 노동대학원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	8	한국대 노동대학원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
9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9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9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10	국민대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10	국민대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10	중앙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11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육경영최고위과정	11	국민대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11	국민대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12	동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12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12	이화여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3	희고경영자과정	13	이화여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3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14	연세대 경영대학원 예술고지도자과정	14	연세대 경영대학원 예술고지도자과정	14	연세대 경영대학원 예술고지도자과정



Getty Images Bank

## 인문·문화계열 순위

순위	학과(과정명)	2017년		2018년	
		2017년 순위	2017년 학과(과정명)	2018년 순위	2018년 학과(과정명)
1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1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1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2	한국대 미술대학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	한국대 미술대학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	한국대 미술대학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미래학 최고위과정	3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미래학 최고위과정	3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미래학 최고위과정

2015~2017년 순위

## 아관계열 순위

순위	학과(과정명)	2017년		2018년	
		2017년 순위	2017년 학과(과정명)	2018년 순위	2018년 학과(과정명)
1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지도자 공학과정	1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지도자 공학과정	1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지도자 공학과정
2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사업학 최고위과정	2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사업학 최고위과정	2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사업학 최고위과정
3	중앙대 건설대학원 글로벌건설CEO과정	3	중앙대 건설대학원 글로벌건설CEO과정	3	중앙대 건설대학원 글로벌건설CEO과정

2015~2017년 순위

## 중앙대 '톱7' 위협… 이화여대, 4계단 경쟁

## 대학별 이미지 평가

최고위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의 선호도가 해를 거듭 할수록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7위 이내에는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아래 매년 똑같은 7개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7위 이하 중상위권에서는 '프리미엄·특화 이미지'로 도약하려는 각 대학의 치열한 경쟁전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최고위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 20곳의 2018년 대학별 평가 결과 서울대가 4.0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2014년부터 쭉 고관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36.36점을 받은 고려대였다. 두 학교는 대기업·중소기업·금융업·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틀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구성해 타 대학 최고위과정과 차별화했다"며 "수강생들이 최고위과정에서 가장 기대하는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는데 힘썼다"고 설명했다.

3위는 연세대(31.76점), 4위는 KAIST(27.74점)이 차지했다. 기업별 유형을 보면 중소기업에서

열한 순위 생길 전이 벌어졌다.

이화여대는 2016년 15위에서 지난해 11위로 4단계나 올랐다. 특히 최고위 경영경영과정(ACE 아카데미)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무장한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대는 8위로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하며 '메스트' 대학을 위협했다. 숭실대(14위) 광운대(15위)는 각각 두 단계 상승했다. 반면 건국대(10위) 동국대(16위) 단국대(17위) 등 '삼국대'는 전년에 비해 두세 단계씩 순위가 하락했다. 사회평판도는 높았지만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은 영향이 컸다.

이번 평가에서 미래 평판도 1위는 성균관대(3.96점)가 차지했다. 이어 KAIST(3.76점) 서울대(2.42점) 한양대(2.26점) 고려대(2.23점) 등의 순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KAIST의 미래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중소기업은 한양대, 금융업은 성균관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는 분석이다.

이원 기자 apple@hankyuung.com

## SKY 대학' 등 7곳

## 4년간 평판 상위권

## KAIST, 中企임원에 인기

## 梨大 ACE아카데미 호평

## 고려대 경영대학원 호평

## KAIST 경영대학원 호평

## 연세대 경영대학원 호평

## 한국대 경영대학원 호평

## 동국대 경영대학원 호평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호평

## 한양대 경영대학원 호평

## 한국대 경영대학원 호평